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회 지킨 4인 제주경찰청, '언성 히어로' 선정

제주경찰청이 올해 '언성 히어로' (unsung hero) 정책을 도입,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한 경찰관 4명을 첫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다.

제주경찰청은 9일 경찰청 한라상방에서 '언성 히어로' 포상수여식을 갖고 ▶제주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과 김성희 경정 ▶수사과 수사1계 양주현 경위 ▶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김봉석 (소방 파견) 경감 ▶소방안전본부 119 종합상황실 김용철 (경찰 파견) 소방경 등 4명을 1월과 2월 '언성 히어로'로 선정, 표창(포상휴가)을 수여했다.

제주경찰청은 매월 1~3명씩 경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 존중문화 확산, 체감치안 향상을 위해 중요 범인 검거, 감동치안 사례 주인공, 내부 숨은 일꾼 등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올해 '언성 히어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장 표장을 받은 김성희 경정은 법의관과 경찰 간의 촘촘한 공조를 통해 매년 200여 구의 시신을 부검하며 도민이 역할함이 없도록 사건의 진실을



양주현 경위, 김성희 경장, 고평기 제주경찰청장, 김용철 소방경, 김봉석 제주경찰청 제공

밝히는 등 경찰 수사 신뢰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김봉석 경감과 김용철 소방경은 범죄와 재난·사고 발생 시 양 기관 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을 통해 지난해 5367건의 골든타임 안에서 생명을 구호하는 등 도민 안전에 기여하며 제주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양주현 경위는 항상 친절한 자세로 현장 수사관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KICS 전자화 전환기 혼란 속 적극적 문제 해결로 시스템 조기 안착에 기여하며 포상 휴가를 받게 됐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한라신협 곶자왈 공유화 기금 후원

한라신협(이사장 강정신)은 지난 6일 제주성안교회에서 열린 제58차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이사장 김범준)에 곶자왈의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한 공유화 기금 1000만원을 후원했다.

한라신협은 2020년부터 재단에 매년 1000만원 씩 곶자왈 공유화 기금을 후원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누적 후원금은 7000만원에 달한다.

강정신 한라신협 이사장은 "제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곶자왈 보전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양택 원장 제주도문화원연합회장 선임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제11대 회장에 김양택(사진) 제주문화원장이 선임됐다.

제주도문화원연합회는 지난 4일 제주해변공연장 다목적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김양택 제주문화원장을 제11대 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김 신임 회장의 임기는 이달 13일부터 3년간이다.

김 신임 회장은 "지역 문화는 시민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쉴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한다"며 "제주도의 각 문화원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의 경제성을 살리고 누구나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교육자 출신이자 문인인 김 신임 회장은 지역교육과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뉴조근정훈장과 탐라문화상을 받은 바 있다.

고길선 시인 카자흐스탄 2025 문학상 동상



제주 고길선(사진) 시인이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된 '제5회 문학 아시아 2025 문학상'에서 시 부문 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8일 면접문학동인에 따르면 이 문학상은 이슬람 철학가 알파리비(878~950)를 기념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문학상이다. 고 시인은 지난해 문학상 시 부문 공모에 '겨울 애(愛)', '동행', '아침 풍경' 등 시 3편을 응모했고 지난 5일 이같은 수상작 선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고 시인은 "너무 영광스런 큰상에 잠시 어머니의 미소가 겹쳐 눈시울이 뜨거워진다"며 "더욱 더 시 창작에 매진해 부끄럽지 않은 향토시인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귀포시 서귀동 출신인 고 시인은 2023년 문예사조 12월호 신인작품상으로 등단한 뒤 지난해 첫 시집 '부니 바람이다'를 냈다. 또 제6회 이어도문학상을 받았다.



아름다운가게 제주지부 나눔보파리 전달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 제주본부는 최근 '아름다운 나눔보파리' 사업의 일환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15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100가구에 전달했다.

도의회, 제주한의병원·한국중부발전·애월아빠들 등이 후원했고, JDC파트너스·네오플·농협 제주본부·서귀포시 생활환경과·탐라국여성회 등이 봉사활동에 동참했다.



나눔적십자봉사회 사랑의 쌀 전달

제주나눔적십자봉사회(회장 최경미)는 지난 7일 현혈의 집 신제주센터 앞에서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사랑의 현혈캠페인을 전개하고 현혈에 동참했다.

최경미 회장은 "당신의 현혈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생명나눔에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주상공회의소 청년부회 사랑의 쌀 후원

제주상공회의소 청년부회(회장 이재성)는 지난 6일 제주아전토피오레컨벤션에서 회장 이·취임식에서 받은 사랑의 쌀 1000kg를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에 전달했다. 쌀은 제주시 내 취약계층 아동 관련 시설들에 전달될 예정이다.

무명천할머니 그린 민화 작품 기탁

제주4·3희생자의 삶을 담은 예술작품이 제주4·3평화재단에 기탁됐다.

9일 재단에 따르면 이순자 전 재경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이 지난 5일 4·3희생자의 삶을 담아낸 민화 작품 '면포여인(綿帛女人)' 1점을 재단에 기탁했다.

이 기증 작품은 '무명천할머니'로 불리는 고(故) 진아영 할머니(1914~2004)의 삶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무명천 할머니는 제주4·3사건 당시인 1949년 1월 12일 한경면 판포리에서 토별대의 총에 얼굴을 맞았다. 그로 인해 아래턱을 잃은 할머니는 부상당한 아래턱 쪽을 하얀 무명천으로 가린 채 평생을 살았기에 '무명천 할머니'라 불렸다.

이순자 전 부회장은 재경4·3희생자유족회에서 활동하며 수도권 지역에서 4·3의 진실을 알리고 유족 간



연대를 이어온 인물로, 이번 기탁 역시 4·3의 기억을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뤄졌다.

이날 작품을 대리전달한 고미(에프알로컬) 지역경영 연구소 CEO는 "이 작품은 루씨온 작가가 그린 민화이며 이순자 여사가 경매를 통해 구입한 작품으로, 무명천 할머니의 미소가 담긴 따뜻한 느낌을 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시청년새마을연대 환경정화 실시

제주시청년새마을연대(회장 이준형)는 지난 7일 회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시 누에마루거리에서 환경정화 활동인 '탄소중립실천! 새마을과 함께 줍깅데이'를 실시했다.

연대는 매월 1회 줍깅데이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비료 사회환원 사랑의 쌀 기탁

제주비료(주)(대표 이용민)는 최근 본사 사무실에서 사랑의 쌀 1000kg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연)에 기탁했다.

쌀은 제주비료가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조천읍 및 남원읍 내 경로당에 전달됐다.



제주비료 사회환원 사랑의 쌀 기탁

제주비료(주)는 최근 본사 사무실에서 사랑의 쌀 1000kg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연)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은 사랑의 쌀 1000kg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연)에 기탁했다.

제주비료는 사랑의 쌀 1000kg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연)에 기탁했다.